

# 주차장·회의실·체육관... 공공자원 시민과 공유한다

### 행안부 시범사업...33개 부처·243개 지자체·168개 기관 정보 제공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만1000원에 숙박...혁신도시 자원 활용 기대

앞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공공기관이 밀집된 혁신도시의 자원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만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역시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본관 1층에 998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각 기관들도 강당은 물론, 모임이나 단체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회의실 시설도 개방 중이다. 여기에 한전을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각 기관은 지원 복지를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농구장과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등 종류도 다양하고 시설도 좋아 지역민들이 활용하기 손색이 없다. 특히, 한전은 개방형 도서관인 '한전 스마트 도서관 에너지(지)'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첨단 스마트 기기와 장비도 도입, 최신성을 확보한데다,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도 조성돼 있어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도서관 공간만 1047.93㎡(317평)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10만751권에 달하는 등 일반 대학 중앙도서관 못지 않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덕분에 하루 평균 방문자수 450여명, 도서 대출권수 일 평균 250여권으로 도서관을 찾는 지역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 특색에 맞춰 숙박시설도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해 조성된 생활관을 개방해 활용하는 것이다. 2인실 132개 생활관이 있으며 1인 1만 1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2월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공유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한 곳의 포털에서 공공부문이 개방하는 공유자원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돼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관과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스마트미디어·핀테크 활성화 협력”

### 방송통신전파진흥원·우리은행·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 MOU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서석진)은 우리은행(행장 손태승),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회장 박대수)와 함께 스마트미디어·핀테크 분야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스마트미디어·핀테크 분야를 육성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협회간 상호협력을 통해 관련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육성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상호협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연계사업 협력 ▲센터 운영 및 시설 장비 지원 등 협력 ▲전문 역량강화 교육과정 공동 개최 및 상호 교류의 장 마련이다. KCA는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

는 전국 6개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등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지속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워비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SMPA는 세미나 개최, 회원사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향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관련 스타트업 발굴 및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전제경 KCA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스마트미디어·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장성에 위치한 비축기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들이 비축 농산물에 대한 품위를 점검하고 있다. <aT 제공>

## 사학연금공단 임직원 ‘공감 경영대회’ 개최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최근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감(共感) 경영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올 한해 거둔 사회적기치 실현과 업무개선 성과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선발하는 성과공감대회와 임직원이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상호공감대회로 진행됐다. 1부 성과공감대회에서는 본선에 오른 총 6개부서

의 성과에 대한 발표와 심사가 진행됐으며, 2부 상호공감대회에서는 ‘공감(共感)’을 키워드로 우수부서 선정과 함께 한해 성과와 업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훈 이사장은 “올해는 공감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많은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며 “2019년에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농수산식품 안심하고 드세요”

### aT 전국 13개 비축기지 위생·안전 최고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최근 전국 8개 지역에 위치한 13개 비축기지의 위생·안전검사 결과 모두 최고등급인 S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비축기지들은 대지면적 43만㎡ 규모로, 보관능력은 9만t이다. 연간 70만t의 비축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aT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치 이행을 위해 2012년부터 매 분기별로 비축기지 시설물 위생관리와 비축농산물의 생물독소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 검사하고 있다. 이번 올해 4분기 검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했다. 강계원 aT 비축사업처장은 “비축농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예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운 이갑선 장경수 김동준 우정환 윤소이 김걸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CHANEL, BM CULTURES, contents, 흥행보도, FCM, 가메피마, COSTIX, WESTWOOD, Wacom, Ezi, Rakuten Viki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